

2010. 28/29호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평협소식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TEL 02•777•2013 / 757•7851 FAX 02•778•7427

<http://www.clak.or.kr> E-mail: [clak@catholic.or.kr](mailto:clak@catholic.or.kr)

발행일 : 2010. 11. 15 발행인 : 최홍준





## 심는 순서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아시아 평신도 대회 특집>

- > 아시아가톨릭평신도대회 3
- > 아시아가톨릭평신도대회 교황교서 6
- > 아시아가톨릭평신도대회 환영인사 7
- > 아시아가톨릭평신도대회 교황님께 드리는 편지 8
- > 아시아 평신도에게 보내는 편지 10
- > 국가 대표들의 발표 : 한국 13
- > 단체들의 발표 : 레지오 마리아 15
- > 사진으로 보는 아시아가톨릭평신도대회 17

### 평신도 주일 강론 22

###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24
- >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25
- >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26
- >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27
- >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28
-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28
- >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32

### 한국평협 회원 단체

- > MBW 한국 공동체 추진 봉사회 33
- >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34
- > 한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 35
- > 레지오 마리아 광주 세나투스 35
- > 한국 가톨릭 나사업 연합회 37

### 교황님 말씀 40



## 알림

◎ 11월 26일(금) ~ 27일(토) 제2차 한국평협 상임위원회의가 춘천교구 강원도 고성 까리타스 피정의 집에서 개최됩니다.



##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 대회 성공적 개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최홍준, 담당 민병덕 신부)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대회’를 주최한 교황청 평신도평의회(의장 스타니스와프 리우코 추기경)에 협력하여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위원장 염수정 주교)와 함께 한국 측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대회를 위한 현지에서의 준비에 총력을 기울였다.

아시아대륙 각 지역교회 18개국의 대표들과 아시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36개의 평신도 사도직 운동·단체 대표들 등 117여 명의 국외 참가자와 한국교회의 참가자 118명, 봉사자 등 4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9월 1일 오전 8시 30분 명동대성당에서의 개막미사로 시작된 이번 대회는 ‘오늘날 아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선포하기’라는 주제로 각 지역교회들의 복음화 활동과 운동·단체들의 사도직 활동을 나누고, 한국교회의 성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가 됐다. 이번 대회에는 주최 측 리우코 추기경 외에도 아시아주교회의연합(FABC) 의장인 로날도 티로나 주교, 인도네시아 주교회의 의장 시투모랑 주교 등 고위 성직자도 함께했다.

한홍순(주교황청 대사) 준비위원장은 개막과 함께 실시한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살고 있는 아시아 대륙에 가톨릭 신자는 불과 3%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아래 한국은 자생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데다 종교적 자유가 보장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로 “종교로 인해 각종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 시사점을 던지고 있으며,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리우코 추기경 역시 “대회가 잘 준비된 데 큰 감명을 받았다”며 “한국 평신도들이 능력 있고 훌륭하다는 증거”라

며 한국교회를 칭찬했다.

8월 31일 대부분 입국한 참가자들은 각기 숙소를 배정받고, 9월 1일 8시 30분 개막미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회의 일정을 시작했으며, 개막미사를 주례한 교황청 평신도평의회 의장 리우코 추기경은 강론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며, 가장 값진 보물”이라며 “우리는 그 보물을 보관하는 사람들이며 현 시대의 다른 이들에게 이것을 선포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임을 강조하고, 요한 바오로 2세의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을 인용해 “오늘날 교회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생활의 새로운 상황이 특별히 평신도들의 행동을 절실하게 촉구”하고 있기에 “어느 누구도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개막미사 직후 열린 개막식에서는 개막연설을 통해 리우코 추기경은 “아시아 교회의 큰 희망 중 하나는 잘 양성되고 열성적이며 성령으로 충만한 평신도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들은 자신의 특별한 성소에 대해 점점 더 깊이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음식에 들어가는 소금의 양은 매우 적지만 맛을 낸다”고 “창의적 소수”로서의 아시아 대륙의 그리스도인들의 복음화의 열정을 격려했고,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교서를 통해 “아시아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소집령”을 상기하면서 이러한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 “세례 때 받은 은총을,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딸이 된 그 존엄을 더욱 깊이 깨달아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대회가 교회의 사명에 결코 없어서는 아니 될 평신도의 역할을 밝혀 주고, 평신도들이 오늘날 아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선포하는 과업을 수행하도록 구체적인 활동과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이명박 대통령의 축사에서는 “이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게 된 것이 크게 성장한 한국 가톨릭



교회를 교황청과 세계교회가 높게 평가한 까닭”이라며 “여러 갈등이 상존하는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경계를 뛰어넘는 협력과 화해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에 “아시아의 평신도들이 모여 선교와 평화를 모색한다는 점”이 각별한 대회의 의의라고 평가하며, 대회의 성공을 기원했다.

최홍준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은 개막 인사에서 각국에서 온 손님들을 환영하는 동시에 “아직도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하느님께 청하면서 대회의 성공을 기원했다.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은 개막 인사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성소와 사명을 숙고하려는 마음으로 여기 순교자의 땅에 함께 모였다”면서 “많은 이웃들이 느끼는 갈증을 충족시키기 위해 교회 전체가 여러 도전을 끌어안아야” 하고, “스스로가 교회 자체인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화를 위한 능동적인 일꾼으로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 투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막식 후 ‘아시아 교회의 선교사명 수행 2천 년’을 주제로 필리페 고메즈 신부의 첫 번째 강연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님, 아시아를 위한 선물’을 주제로 텔레스포어 토포 추기경의 강연과 아시아 국가 대표들의 ‘아시아 교회의 생활과 사명’ 발표가 이어졌고, 만찬 후에는 참가자들을 소개하는 리셉션이 열렸다.

포콜라레 회원들의 성가로 진행된 아침 기도를 시작으로 둘째 날에는 조세프 클레멘스 주교의 강연 ‘시노드 후속 교황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본 평신도의 소명과 사명’에 이어 ‘아시아에서의 그리스도교적 양성과 평신도들의 선교 노력’을 주제로 한 딘 덕 다오 교수의 강연과 ‘그리스도교 입문과 평신도들의 교육’(토마스 메남과 람필 대주교), ‘평신도들의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의 증언’(제스 에스타니슬라오), ‘그리스도교적 사랑과 빈민 봉사

의 증언’(마르티누스 시투모랑 주교) 등의 패널 토론이 계속됐으며, 오후에는 열린 토론에 이어 ‘평신도들의 그리스도교 일치 활동 체험’(아짐 쉐라즈), ‘평신도들의 종교 간 대화 체험’(사비오 혼 타이 파이 신부), ‘평신도들의 복음의 토착화 노력’(토마스 멘남과 람필 대주교)의 패널 토론이 계속됐다.

아시아주교회의연합 의장 로날도 티로나 주교의 주례로 봉헌된 미사 후에는 선종 400주년을 맞는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 리치의 삶에 대한 영화 상영으로 둘째 날 일정을 마쳤다.

셋째 날은 ‘용감한 신앙의 증인들’을 주제로 베르나르도 체벨레라 신부의 강연으로 문을 열어 ‘아시아에서의 복음 선교의 몇몇 분야와 우선순위’를 주제로 한 패널 토의가 이어졌는데 한국의 정의철 신부가 ‘본당 쇄신’에 대해서, 로날도 티로나 주교가 ‘가정의 사명과 가정사목’, 켈리엄 바즈 씨가 ‘가톨릭 학교의 정체성’, 마노즈 씨니 씨가 ‘청년 복음화와 청년사목’, 제나이다 로테아 씨가 ‘여성의 교회와 사회에서의 역할’, 도요안 신부가 ‘가톨릭 평신도들의 정치와 일터(노동계) 참여’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어서 교황청 평신도평의회의 구즈만 카리퀴리 교수가 ‘평신도 단체의 새 시대’를 주제로 강연했고, 아시아 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도직 단체들의 발표가 ‘아시아 교회의 생활과 사명에 있어서 운동들과 새로운 공동체들’이라는 주제로 계속됐다.

이날 저녁에는 특히 대표적인 한국 성지 가운데 하나인 절두산 순교성지에서 미사가 봉헌됐는데 참가자들은 모두 짝을 이뤄 지하철로 성지까지 순례의 길을 걷는 특별한 체험을 했다. 성지에서 봉헌된 미사는 이 대회의 준비를 맡은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인 염수정 주교가 주례했는데 강론을 통해 염주교는 아시아에 상존하는 문제들 - 전쟁, 재해, 인권, 환경, 여성인권, 이주노동자 - 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 신앙 공동체는 아시아의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희망의 위대한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도 순교자들의 모범을 따라 마지막 승리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날인 9월 4일은 인도의 토포 추기경의 주례로 봉헌된 미사로 시작됐다. 강론에서 토포 추기경은 “이 대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참가하고, 함께 기도하고 계신다”면서 “우리의 삶과 일에서 하느님의 현존 아래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강연은 이 대회의 주최자인 교황청 평신도평의회 의장 스타니스와프 리우코 추기경이 ‘평신도: 아시아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 희망의 증인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했으며, 전 일정을 마무리하는 폐막행사가 이어졌다. 여기서는 교황님께 드리는 대회 참가자들의 편지와 아시아의 모든 평신도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낭독됐다. 오후에는 미니 투어로 경복궁과 국립박물관을 돌아보는 코스, 남산 한옥마을과 남산N타워를 돌아보는 코스, 한국민속촌 코스로 각각 나누어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다소 빡빡한 일정 가운데 여유를 만끽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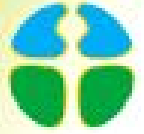
이날 밤에는 ‘한국의 밤’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 풍물패의 흥겨운 길놀이로 시작하여 참가국 대표들이 준비한 각 나라의 민속노래와 춤과 한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나누어 준 소고를 함께 배우고, 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는 오전 10시 서울대교구장인 정진석 추기경의 주례로 명동대성당의 신자들과 함께하는 파견미사를 끝으로 전 일정을 마무리했다. 미사 중에 대회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선교사로 파견하는 상징으로 대회 엠블럼이 각인된 십자가와 교황님 문장이 새겨진 목주를 수여했다. 정 추기경은 강론에서 대회가 진행된 명동성당에 대해 “모든 한국인에게 민주화의 성지로 높이 평가” 받는 곳이라면서 “하느님의 증인이며 하느님 사랑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던 한국인 순교자들에게 마음이 머무른

다”며 “한국 가톨릭교회는 한국사회에서 소수집단이지만 모든 증인활동을 통해 한국사회의 중심에 서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펼쳐지는 꾸준한 자선사업, 사회정의와 관련된 많은 문제에 있어 분명하고도 확고한 입장 표명, 그리고 독재정권 하에서 억압받는 노동자들의 인권 옹호 등을 통하여 한국 교회는 정의의 수호자, 가난한 이와 억압받는 이들의 보호자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희망 안에서 ‘소수의 영성’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높은 기온과 태풍이 부는 날씨 가운데서도 참가자들의 열정과 형제애는 대회 전 기간에 걸쳐 기쁨과 희망을 나눌 수 있는 대회로 만들었고,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큰 은총 안에 성장해 왔는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아시아 평신도 대회에 보낸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교서>

존경하는 형제인 교황청 평신도평의회 의장 스타니스와프 리우코 추기경님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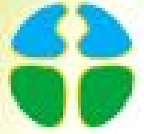
저는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 대회가 2010년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쁩니다. 교황청 평신도 평의회가 주최하는 이 뜻깊은 사목 행사를 위하여 아시아에서 모인 주교와 사제, 수도자와 평신도들에게 충심으로 드리는 저의 인사와 기도와 축원을 전해 주시기를 추기경님께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아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선포하기라는 평신도 대회의 이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저는 이 대회가 아시아 대륙의 평신도들이 기쁨에 넘쳐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지닌 생명을 주는 진리를 증언하도록 격려해 주고 이끌어 주리라 믿습니다.

아시아는 세계 인구 삼분의 이의 고향이며 여러 위대한 종교와 여성 전통의 요람이고 다양한 문화의 발상지로서 지금 전대미문의 경제 성장과 사회 변혁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가톨릭 신자들은 하느님과 또 사람들과 이루는 일치와 친교, 온 인류 가족이 누려야 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저 일치와 친교의 표지가 되고 그 약속이 되도록 부름 받고 있습니다. 대륙의 여러 민족, 문화, 종교로 이루어진 모자이크의 한 부분으로서 가톨릭 신자들은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야 할 위대한 사명을 맡아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아시아인들에게 할 수 있는 최상의 봉사이며 최대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평신도 대회에서 이 거룩한 명령 수행의 새로운 격려와 방향 제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시아의 민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아시아는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생명수를 목말라하고 있습니다”(아시아 교회 50항). 하느님의 종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아시아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소집령, 그 예언자다운 말씀이 아직도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이러한 사명을 수행하려면, 세례 때 받은 은총을,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딸이 된 그 존엄을 더욱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성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 신비체인 교회의 지체로서 성령의 도우를 받은 그 존엄을 깊이 의식하여야 합니다. 자기 목자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치하여, 신앙의 나그네 길을 걷는 걸음걸음마다 건설한 여성 교육과 교리 교육을 받으며, 자기네 지역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건설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데 적극 협력하도록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선교의 광활한 지평이 지금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고자 진력하는 아시아의 남녀 평신도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을 보여 주는 여러 기회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랑, 가정 생활,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을 잉태[受胎]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지켜야 할 생명 수호, 가난한 사람들과 억압 받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원수들과 박해자들을 기꺼이 용서하려는 의지, 일터와 공직 생활에서 보여 주는 정의와 진실과 연대의 표상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량을 갖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평신도들의 증가는 아시아 교회의 미래를 위한 거대한 희망의 표지입니다. 여기서 저는 젊은 이들은 물론 노인들에게도 풍요로운 가톨릭 신앙을 전해 주며 개인과 가정과 본당 공동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도록 이끌어 주는 수많은 교리 교사들의 뛰어난 활동에 각별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직 활동과 성령 운동은 평신도 양성, 특별히 가정과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삶과 활력을 가져다주기에 이 또한 성령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인간 존엄과 정의의 증진에 헌신하는 교회 단체들과 운동 단체들은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복음 메시지의 보편성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기도와 자선 활동에 전념하는 수많은 개인과 집단들, 그리고 본당 사목 위원회들의 공헌과 더불어, 이 단체들은 아시아의 개별 교회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세워지고, 보편 교회와 이루는 친교 안에서 힘을 얻고, 복음 전파의 열정 안에서 새로워지도록 협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저는 이 대회가 교회의 사명에 결코 없어서는 아니 될 평신도의 역할을 밝혀 주고, 평신도들이 오늘날 아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선포하는 과업을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구체적인 활동과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빕니다. 저는 이 대회의 토론에서 그리스도인 생활과 소명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드높은 은총과 행복의 근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 하리라고 믿습니다. 모든 가톨릭 신자는 바오로 사도와 함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입니다”(필리



1,21).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삶에 의미와 방향을 제시해 주는 진리와 기쁨과 아름다움을 찾은 이들은 당연히 이 은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당장 방대한 과업에 짓눌리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평신도들은 성령의 신비로운 현존을 신뢰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또 그들의 전통과 문화 안에서 움직이시며, 모든 인간의 열망을 성취시켜 주시는 “길ियो 진리요 생명”(요한 14,6)이신 그리스도께 신비로이 문을 열어젖혀 주십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저는 모든 대회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 안에서 이 연구와 식별의 기간에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을 더욱더 열렬히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님을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전구에 참가자들을 맡겨 드리며, 진심에서 우리나라의 저의 교황 강복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화의 보증으로 보내 드립니다.

바티칸에서, 2010년 8월 10일,  
교황 베네딕토 16세.

다음은 지난 9월 1일 오전 명동성당 포스트홀에서 거행된 아시아 가톨릭평신도대회 개최식에서 개최국 평신도로서 서울대교구 정인선 아녜스 자매와 레지오 마리에 서울 세나투스 하성환 프란치스코 형제의 환영 인사 전문이다. -편집자-

### 개회식 환영 인사

“오늘날 아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선포하기”라는 주제를 내걸고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대회를 시작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하느님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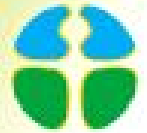
아울러 이번 행사를 위해 축복을 보내주신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대회를 주최하시고 함께 해주신 교황청 평신도평의회 의장 스타니스와프 리우코 추기경님과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님, 주한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라 대주교님을 비롯한 제위 주교님들, 교황청 관계자들과 내외 귀빈, 참가국 대표, 운동 단체를 대표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 보도진과 준비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대회 개최지인 한국교회 평신도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분, 한분을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해 따뜻하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에서 오신 분 역시도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견어내고 예수님을 사랑해드리기 위해서 이곳으로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두고 오신 가족과 걱정꺼리들을 예수님과 성모님께 맡겨드립니다. 틀림없이 잘 보호해주시고 해결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사랑이신 하느님께 청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구성원이라는 바로 그 이유에서 복음 선포의 소명과 사명을 지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한 ‘길ियो 진리요 생명’(요한 14,6)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곳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오직 하나 남은 분단국이면서 103명이나 되는 순교 성인들의 땅이기도 합니다. 26년 전 이분들에 대한 시성식을 주재하기 위해 이 땅에 첫발을 내디디셨을 때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순교자들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에 친구(親口)하셨습니다.

아직도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아시아 여러 지역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사랑이신 하느님을 이웃에 전해주기 위한 아시아 평신도대회가 성삼위의 일치를 바탕으로 주님 뜻 안에서 커다란 결실을 보게 되기를 축원하면서, 한국교회의 평신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시아가톨릭 평신도대회 참가자들이 정리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 드리는 편지의 전문이다. -편집자-

### 교황님께 드리는 편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 대회 참가자 일동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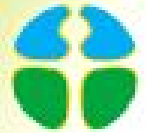
Letter to the Holy Father, Pope Benedict XVI,  
on behalf of the participants of the Congress of Asian Catholic Laity

교황 성하,

교황청 평신도평의회가 조직한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 대회가 이제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저희들은 이곳 서울에서 한국 가톨릭교회의 손님으로 대접을 받았고 한국 가톨릭 신자들은 저희로 하여금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느끼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내일 저희는 서울대교구 주교좌 성당에서 존경하는 정진석 추기경님의 주례로 미사를 거행하면서, 하느님께서 이번 아시아 평신도 대회를 통해 저희에게 많은 축복을 풍성히 내려 주시고 사도직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심어 주신 은총에 감사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는 - 아시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온 주교님과 사제들, 수도자들과 평신도들, 그리고 아시아주교회의연합(FABC)의 대표들과 여러 교회운동단체, 새로운 공동체들의 대표인 - 저희 모두에게 이 거대하고 도전적인 대륙에서 저희가 주님의 아들딸이자 제자이고, 증거자이며 선교사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화하고 심화해 주는 특별한 은총이 스며들게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보편교회가, 무엇보다도 교황 성하께서 저희를 동반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대회의 개막식 때, 교황 성하께서 스타니스와프 리우코 추기경님께 보낸 편지를 통해, 저희에게 해주신 격려와 인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는 교황 성하의 부성애를 느꼈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교황 성하의 평신도평의회가 보여준 이 같은 노력에 대해 감사드리며, 이는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님의 보편적인 사목 직무의 분명한 표시이자, 교황님의 지칠 줄 모르는 선교적인 보살핌을 보여 주는 명확한 표지라고 여깁니다.

성찰의 시간이었던 지난 며칠간, 여러 차례 등장했던 주제는 아시아의 평신도들이 '자신들의 세례에 대해, 또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의 그들의 존엄성에 대해 더욱 인식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지역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뿐만 아니라, 사회 각 영역에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능동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교황님의 메시지에서 발췌). 많은 대회 참석자들의 증언은 이와 같은 평신도 선교 사명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최근 몇 년간 성숙되어 왔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또 그들의 증언은 세례받은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신들의 성소를 더욱 자라나게 하고 교회에 대한 자신들의 소속감을 드높이도록 돕고자 하는 저희의 결심을 더욱 굳건히 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건설함에 있어서 저희 평신도만이 할 수 있는 기여에 대해, 그리고 아시아 전역의 우리의 모든 형제자매들의 선익을 위해 우리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라 실천해야 할 여러 자선 활동에 대해, 깊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뿌리를 뒤흔드는 듯 한 깊은 변화를 겪고 있는 이 아시아 사회 한 가운데에 살고 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인간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훨씬 더 품위 있는 삶의 조건들을 확립하는 데 협력하고 싶습니다. 저희 모두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덕에로의 오솔길을 향해 회개하도록 저의 삶을 이끄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과의 세신된 만남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올 교황 성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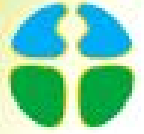
저희는 교황님의 작은 양 떼입니다. 이 양 떼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커다란 대륙의 광활함과, 유서 깊은 문화 종교적 전통 앞에서, 때때로 그토록 작고 부적합한 모습으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아시아의 문화 종교적 전통과는 대조적으로, 때로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경제성장과 빠른 사회변화는 이 대륙으로 하여금 세계 무대에서 보다 큰 역할을 하게하고, 점점 더 선두에 서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는 작은 양 떼이지만, "아시아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매일 직접 증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아시아 대륙은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살아 있는 물에 대한 목마름을 지니고 있다는 것" (아시아 교회, 50항)을 증거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는 이번 대회에 보내신 메시지에서 성하게서 제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을 저희 각자, 가톨릭 평신도로서, 더욱더 열렬히 증거 해야 할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분이신 세상의 구세주로서 선포해야 함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황 성하, 저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어느 곳에서도 교회는 강력한 역풍과 파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저희는 난파되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들이 닥칠 때, 저희는 저희 근심을 털어주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마태오 14, 27)

저희는 그리스도께 안전하게 매달려 있음으로써, 모든 폭풍우를 무사히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교황 성하께서는 그 폭풍우 속에서 그분과 함께, 오로지 그분께 시선을 고정시킨 채, 굳건히 교회라는 이 배의 키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나라를 향해, 하느님의 아드님과의 친교를 향해, 저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고 또 주시는 그분을 향해," 그 종착지에도 이 배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베네딕도 16세, 교황직 취임 미사 강론, 2005년 4월 24일)

이로 인해 저희는 베드로의 후계자, 보편적인 목자이신 교황님과의 애정 어리고 실질적인 친교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최종적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황 성하의 훌륭한 가르침 안에서 저희의 신앙을 확인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궁극적이고 지속적인 평화이심을 언제 어디서나 선포하고자 합니다. 교황 성하께서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침착함과 친절함을 잃지 않고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같은 모습에 저희 모두 놀라움 속에 많은 깨달음을 얻고



감화를 받게 되며, 복음 선포에 있어서 교회의 보편성과 성인들의 통공에 힘입어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번 대회 내내 저희는 교황 성하를 위해, 또 성하의 사목적 직무를 위해, 그리고 성하의 지향들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이 교황 성하로 하여금 더욱 더 강인해지시고 더욱 큰 용기를 갖게 해주시도록 저희는 항상 기도할 것입니다. 교황 성하가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실 때, 우리의 복되신 어머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께서 자애로운 피난처가 되시고 위로의 원천이 되시며, 새로운 힘이 되시길 빕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희 각자를 교황님의 기도에 맡겨 드립니다. 교황 성하, 저희는 교황 성하께서 주님 앞에서 저희를 기억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 아시아 대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지역에서 때로는 영웅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증거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아시아 곳곳에서 우리에게 앞서 신앙을 선포한, 위대한 성인들과 순교자들, 선교사들께 전구를 청하실 때, 저희를 기억해 주십시오. 특별히 아시아의 평신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날 수 있도록, 아시아의 평신도들과 그 가족, 그들의 공동체와 운동 단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들에 보내는 메시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과 이 광활한 아시아 대륙 전역의 그 모든 다양한 나라에서 그분을 증거하는 모든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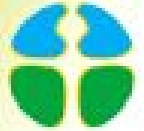
특히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세례를 받은 성부 하느님의 자녀들이며, 성령의 도우를 받고, 사도이자 증거자, 선교사로서 우리의 소명과 책임을 인식하고 있는 우리의 가톨릭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8월 31일에서 9월 1일까지 한국의 서울에서 교황청 평신도평의회와 협조 하에 한국 교회의 여러 부문과 협력하여 열린 이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 대회에 참석하며 우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마음 속으로부터 우리나라는 깊은 감사와 기쁨과 희망의 정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 뜻 깊은 행사에 참여하신 400명 가운데는 각 국의 주교님과 사제들께서 이끄시는 여러 아시아 국가의 주교 회의의 대표단 분들과, 아시아 주교 회의 연합의 대표들, 아시아의 단체, 교회 운동 및 새로운 공동체의 대표들, 그리고 수많은 한국 가톨릭 평신도들이 계십니다.

기도와 교회적 친교 및 우정의 분위기를 즐기는 한편으로, 이 대회의 주제 “오늘날 아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기”의 인도를 받아 우리는 신앙의 빛으로 우리의 친애하는 이 대륙의 지금의 현실을 비추어 볼 수 있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 성하께서도 분명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성하께서는 이 대회를 계기로 스타니스와프 리우코 추기경님 앞으로 보내주신 교황서한에서 우리 모두에게 하신 격려와 가르침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부성애와 친밀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서한



에서 성하게서는 이 대회가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신성한 위임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새로운 용기를 북돋워주는 계기가 될 것을 바라심을 표하셨습니다. 진정으로 교황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거대한 사명’이 맡겨졌다는 것을 주지하셨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시아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이자 가장 큰 선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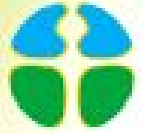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 세례의 은총과 개인적이고도 모습을 바꾸는 예수님과의 만남, 곧 바로 성인의 경우처럼, “지고의 행복의 원천이자 다른 이들과 나눌 선물” (리우코 추기경에게 보낸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서한 참조) 이 된 그 만남에서 비롯된 이 사명의 위대함과 그 일정을 새로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자주 성사를 받거나, 자주 그분과 함께하는 기도의 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힐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은총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어루만지게 해 드림으로써, 그분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각자의 거룩한 소명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교회의 삶과 “사회에서 복음을 위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협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글)

우리는 그토록 많은 가톨릭 평신도들이 들려준 증거에 계속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대륙에서 그토록 적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복음화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고, 가톨릭 교회와 통공을 이룸으로써 힘을 얻으며,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지만 수 십 억에 이르는 세례 받은 가톨릭 신자들과 형제자매를 이루고 있다는 확신은 물론,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 지금은 성인들의 통공의 일부를 이루는 우리 대륙의 형제자매들이 우리에게 남긴 영웅적인 신앙의 증거들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특히 개인 신앙의 자유가 거부되거나 제한된 곳의 민간 사회에서 신앙의 용감한 증거를 보이는 이들이나,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의 적대감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이들, 혹은 신앙 때문에 정부 권력의 위협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은 이들의 교화를 받았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는 테르툴리아노의 명언은 우리 시대와 이 대륙에도 얼마나 적절한 말인지요!

우리는 이 대회기간 동안 수많은 생각들을 반추하고, 많은 경험들을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평신도의 그리스도인 신분과 그리스도교 입문 및 지속적인 양성의 중요성, 그리고 친교의 신비인 교회에 대한 우리의 소속감, 지역 교회와 본당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공동 책임, 교회의 삶에 소중한 선물로서 소 신앙 공동체나 교회 운동 및 새로운 공동체들의 체험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수동적이거나 사기가 꺾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가톨릭 평신도들이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교님과 성직자들과의 예정 어리고 실제적인 친교 속에서 우리 지역 교회 삶의 주인공이 되고자 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께서 한 번은 이 대륙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거대한 사명을 받은 “작은 무리”라고 일컬으셨습니다. 교회가 아시아의 백성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고의 봉사이며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입니다. (시노드 후 교황 권고, ‘아시아의 교회, 10, 20) 우리는 그렇게 작은 무리입니다. 소수인 것에 열등의식이나 두려움으로 고통 받지 않습니다. 교회의 벽 안에만 갇혀 있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반죽을 부풀리는 누룩’이 되고, 맛을 내는 소금이, 이 대륙 전체를 비추는 빛이 되라는 부르심을 느낍니다. 요 며칠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른 교회에 속하는 그리스도인들과의 형제적 교회 일치에 관한 그들의 고무적인 체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타 종교 신자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며 대화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가장 영웅적으로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애덕을 살아온 이들의 이야기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가정들이 보여준 “가정교회”의 호소력 넘치는 본보기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교 양성에 참여하는 많은 이들의 헌신과 가톨릭 교육 기관들의 사도직을 통해 공동선에 대한 보편적 봉사, 혹은 사회 통신 수단을 통해서나, 비즈니스를 통해, 정계에서나 다른 문화 분야에서 다수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현존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장소에 존재합니다. 아무런 예외나 차별도 없이 아시아의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에 대한 사랑에 감화를 받은 우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오랜 문화적 전통의 풍요로움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동시에 우리에게서 모든 인간 염원의 달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믿음을 나누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시아는 현재 유래 없는 성장과 사회적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거대한 인구와 신속한 경제 발전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곳을 중요한 중심지로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는 자유, 정의, 연대감과 보다 인간다운 생활 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식견에 따라, 우리는 우리 백성들의 선을 위해 위의 문제들을 해결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리스도인 특유의 기여가 필수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 엄청난 임무 앞에서,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바로 아시아를 위한 시노드에서 지적되었고 교황 성하의 메시지에서 반복되었던 말씀입니다. “아시아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대륙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물에 목말라있기 때문입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리우코 추기경에게 보낸 서한 참조)

그러므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분을, 하느님의 진정한 얼굴, 계시의 완성, 유일한 구원자, 모든 인간 열망의 달성이신 그분을 만났음에 감사 드리고 기뻐하며, 우리의 모든 ‘이웃들’ 과, 우리 이웃에서, 학교와 대학교에서, 일터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체험한 것을 나누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갱신합니다. 이는 전략적 마케팅이나 광신적인 개종시키기가 아니라, 오히려 단순히 하나의 만남의 결실입니다. 이에 대해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메시지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삶에 의미와 방향을 주는 진리, 기쁨, 아름다움을 발견한 이들은 자연스럽게 이 은총을 다른 이들에게 가져가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같은 메시지)

용기를 내십시오, 친구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악은 더 이상 최종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미움보다, 무관심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느님 은총의 힘은 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충만함, 이 거대한 보석, 이 값진 진주를 다른 이들과 너그럽게 나누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보물을 질그릇에 담아 가지고 다니더라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 모두가 그 불림을 받았고, 모든 인간이 마음속 깊이 열망하는 기적적인 일치의 원천, 친교(통공)의 신비를 증거합니다. 우리는 오늘과 내일의 아시아 백성들을 위한 가장 최고 선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모두 도와주시어 이 임무를 수행하고, 복되신 성모님께서 우리를 동반하고 위로하시며, 당신 아드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전구하시어 우리가 갈 길을 밝히고 “새로운 복음화의 밝은 별”로서 우리를 앞장 서 가실 것을 기원합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일 아시아 가톨릭평신도대회에서 “아시아 교회의 생활과 사명: 아시아 국가 대표들의 발표” 시간에 최홍준 한국평협 회장이 발언한 내용 전문입니다. -편집자-

국별보고 / KOREA

## 복음화와 복음적 삶의 괴리(乖離)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한국천주교회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09년 12월 31일 현재 신자 수가 512만 92명이며 인구대비 10.1%로 처음으로 10%를 넘었습니다. 복음화율은 농촌보다 도시가 높고, 저소득층보다 중산층 이상이 더 높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화 현상이 있기까지 평신도들이 공헌한 바가 매우 큼니다. 18세기 후반 선교사들의 도움 없이 평신도들의 노력으로 출발한 한국 천주교회는 아름다운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양떼는 목자를 위해서 죽고 목자들은 양떼를 위해서 죽어간 전통입니다.

교회 창설 초기, 중국인 주문모 야고보 신부를 박해자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기 위해 서울의 최인길 마티아 회장이 신부로 가장하고 포졸들 앞에 나섰습니다. 역관 집안 출신이

었던 그는 포졸들이 묻는 말에 중국어로 대답하면서 결국 관청으로 끌려가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 후 전국적인 박해가 일어나자 주 야고보 신부는 고국인 중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으나 신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박해자들 앞에 섰고, 결국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2. 한국교회에는 평신도 중에 ‘회장’(會長, Catechista)이 선임돼 사목자를 도우면서 교회 발전에 앞장섰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미 200여년 전 박해시대 서울에서는 몇몇 구역으로 나누어 회장들에게 지역 관리를 맡겼고, 지방은 공소(公所)별로 회장을 임명해 신부 대신 신자들을 돌보도록 했습니다. 교리교육과 선교를 위해서는 명도회(明道會) 같은 단체를 설립해 회장을 임명했고, 여성 신자들을 위해서는 여회장을 임명해 가르치고 보살피도록 했던 것입니다. 회장들은 대부분 덕행이 뛰어나 신자들의 신뢰를 받으면서 자신의 본분을 충실히 지켰고, 신자들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파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통을 오늘에 이어받을 수 있도록 ‘친교의 교회상’을 제대로 정립(正立)하는 것이 당연한 한국교회의 과제이며, 평신도와 성직자들이 노력해야 할 몫이기도 합니다.

3.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 이후 교회와 사회 안에서 평신도의 역할과 평신도사도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1968년 전국적인 조직인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The Catholic Lay Apostolate Council of Korea)가 발족해 각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와 교회운동 단체들 간의 사도직 활동을 도우면서 정보 교환 등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교회의(CBCK)는 ‘평신도주일’(연중 마지막 전주일)을 제정해 이날 각 본당에서 평신도가 강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주일 두 번째 헌금을 거두어 이를 교구와 한국평협에 보내 평신도사도직활동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4. 한국평협은 1980년대 초부터 ‘믿고 사는 세상을 구현하자’는 취지로 신뢰회복운동을 전개하면서 가톨릭대상을 제정해 사랑, 정의, 문화부문에서 복음의 빛을 비치게 한 분들을 선정해서 매년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신뢰회복운동의 하나로 ‘내탓이오’ 캠페인을 실시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 널리 책임 의식을 불어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평신도 재교육에 힘쓴 서울대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4년 전부터 신학교 교수진을 중심으로 ‘평신도학교 공의회과정’을 개설해 연간 32강좌에 매년 1백여 명의 수강생들에게 공의회 16개 문헌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5. 한국교회 평신도들은 개인 사도직과 단체 사도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평신도사도직 협의회 등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당에서 사목회 활동을 통해서, 또한 여러 신심단체와 직능단체, 후원회 활동을 통해서 사도직을 수행하는 평신도들이 많고, 성체분배 등을 통해서 일손이 부족한 사목자들을 도와주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평신도들의 교회생활 참여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2000년 대회년을 전후로 서울을 비롯한 각 교구가 교구 시노드를 개최했을 때 성직자, 수도지들과 함께 평신도들이 적극 나서서 크게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시노두스의 경우, 노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여기에 교회가 적절히 대처해야 하며, 하느님의 뜻 안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 사실이라든지, 여성 평신도들에 대한 교회의 관심을 적절히 드러내도록 한 점은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6. ‘평신도의 교회생활 참여’를 주제로 한 제3차 동아시아평신도대회(The 3rd East Asian Laity Meeting)가 1992년에, ‘사회교리 실천’을 주제로 한 제1회 아시아 평신도대회(The First Asian Laity Meeting)가 1994년 한국에서 열리면서 평신도사도직 수행에 관한 한국교회 내의 인식이 새로워졌고,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이 각 교구와 본당에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에서는 1995년 이래 지금까지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리학교’를 열고 있습니다.

분단된 국토의 다른 한쪽인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고 도와주는 뜻에서 ‘민족화해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교회는 가정, 생명, 환경운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평신도들의 활동이 대단합니다. 이혼 비율이 높은 한국 사회에서 이웃 가정을 복음의 빛으로 돌보는 신자 가정이 많습니다.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이 시행된 이후 30년이 넘도록 낙태반대운동을 전개해왔고, 특히 낙태 시술을 거부하는 의사들의 ‘프로 라이프’ 운동도 활발합니다. 그러나 신자들도 비신자와 거의 같은 비율로 낙태를 경험하고 있으며, 신자 국회의원의 비율이 높지만 의정활동 중에는 사형제도 반대 등 생명운동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례가 많은 것이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7. ‘인간중심의 경제생활’과 ‘인간중심의 사회생활’을 강조한 교회의 가르침(「평신도 그리스도인」43항)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한국 평신도들은 특별히 “그리스도교 신앙은 문화 속에서 문화를 통해서만 역사성을 지니고 역사를 창조하게 된다는 점을 상기 하면서, 복음화에 있어 중요한 것은”복음화가 문화를 마치 걸치장하는 것처럼 장식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의 깊은 근원에까지 생명력 있게 복음화하는 것이다.……복음과 문화의 불합(不합) 관계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에 있어서도 이롭지 못한 상황이다. 문화를, 더 정확하게 말해서 문화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하겠다.”(이상 「평신도 그리스도인」44항)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회 홍보수단, 특히 대중매체에 종사하는 가톨릭 신자들을 비롯해서 문화의 향기를 맡고 사는 상당수의 평신도들이 문화의 복음화에 일익을 담당하는 사례를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8. 한국사람 열 명 중 한 사람은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았고, 이들 가운데 세 사람은 냉담자이며, 세례받은 신자 네명 중 한 사람만 주일 미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10%의 복음화율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고, 반면에 신자들 가운데 3분의 1이 성사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한국교회에 아픔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한국교회는 2020년에 인구 대비 20%의 복음화를 달성하자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는 신자들이 복음을 살아야 하고, 평신도들이 제대로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함으로써 신앙과 생활의 괴리(乖離)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난 9월 2일 아시아가톨릭 평신도대회에서 단체들의 발표 중 레지오 마리에 서울 세나투스 한휘운 단장이 발표한 ‘한국 레지오 마리에에 관한 개요’의 요약문이다. -편집자-

### 아시아, 특히 한국의 레지오 마리에에 관한 개요

여기 계신 모든 분께 아시아, 특히 한국의 레지오 마리에에 대해 소개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레지오 마리아는 하느님의 종인 프랭크 더프에 의해 1921년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설립된 가톨릭 단체입니다. 목적은 단원들의 성화를 통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있습니다.



레지오 단원들은 프랭크 더프에게 커다란 감동을 준 교리인 몽포르의 루도비코-마리아 성인의 ‘복되신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의 가르침으로부터 특별한 감화를 얻습니다. 프랭크 더프가 저술한 레지오 마리아 교본에 ‘모든 피조물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야’ (마르 16,15)라는 제목의 장(章)이 있는데 이는 ‘오늘날 아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선포하기’라는 이 대회的主제를 반영하고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모든 평신도에게 감화를 주는 본보기인 프랭크 더프의 시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레지오 마리아는 175개 이상의 국가에 존재하고 레지오 마리아 교본은 70개 이상의 언어로 출판되어 왔습니다. 레지오 마리아는 약 3백만 명의 행동단원과 약 천만 명의 기도하는 협조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시아대륙에는 1931년에 처음으로 인도에 도입되었고, 그 후 중국, 미얀마, 필리핀, 일본, 베트남, 홍콩, 대만, 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도입되었습니다. 1950년대 중국에서의 교회 박해로 수천 명의 레지오 단원들이 감옥에 갇히고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오늘날 레지오 마리아는 아시아와 대양주의 47개국에 존재하며 516,000 명의 행동단원, 11만 명의 소년단원과 706,000 명의 협조단원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카자흐스탄, 몽고, 네팔, 그루지야와 아르메니아에서 레지오 마리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국 레지오 마리아는 1953년 5월 31일 한국의 남부 지역인 목포에 3개 브레시디움을 설립함으로써 처음 도입되었고, 1978년 한국 레지오 도입 25주년을 맞아 광주 세나투스와 서울 세나투스로 분리하였습니다. 2009년 말 가톨릭 신자는 5백만이 되었고 레지오 마리아는 26만 명의 행동단원과 27만 명의 협조단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레지오 마리아는 전국에 30,160개의 브레시디움, 2,147개의 꾸리아, 217개의 꼬미씨움, 15개의 레지오와 3개의 세나투스가 있습니다. 한국의 1,500여개 본당 중에 레지오가 없는 본당은 거의 없습니다.

아시아에서의 레지오 마리아의 사도직활동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본당 구역을 다니며 하는 활동, 가톨릭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교 권유와 교리 교육이 사도직 활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가정 방문과 병원 방문이 많이 행해집니다. 대부분의 지방에서 레지오 마리아는 힌두교나 이슬람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기독교 신자들의 가정에서도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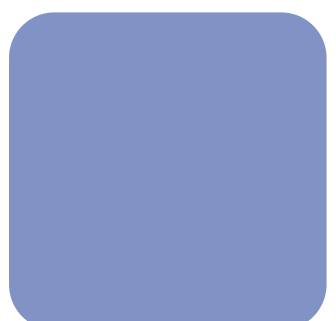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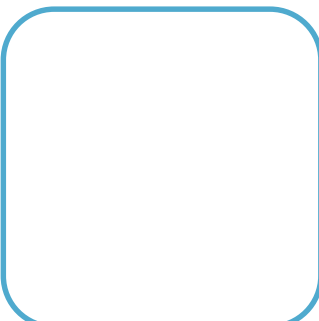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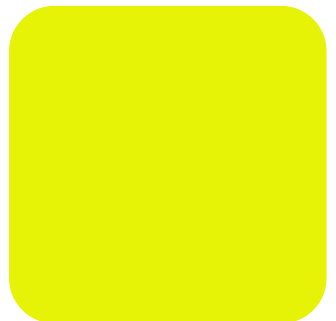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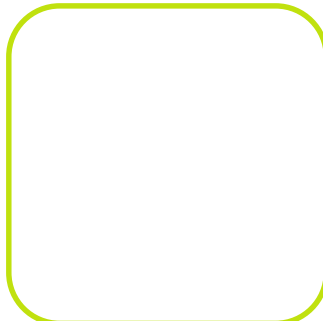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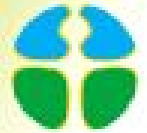
다. 인도의 일부 지역과 스리랑카는 쓰나미로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는 레지오 마리아의 평의회도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의미이지만 몸 바쳐 봉사하는 단원들과 새로운 단원들로 인해 점차적으로 재건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생활은 레지오 단원들, 특히 지방과 산간 지역의 레지오 단원들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커다란 중심 지역에 있는 단원들은 가능한 교통수단은 무엇이든지 이용하여 거리가 먼 지역의 레지오 단원들을 방문합니다. 필리핀에서 레지오 단원들은 세례와 혼배를 준비하며 많은 본당에서 핵심 일꾼입니다. 다른 아시아 지역의 많은 단원들이 때때로 매우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말없이 영웅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원들은 참여가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지 사제의 지시에 따라 수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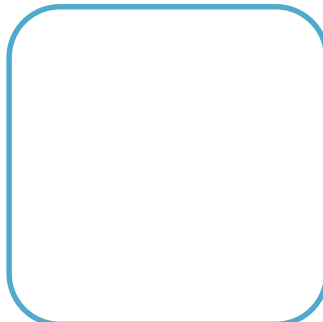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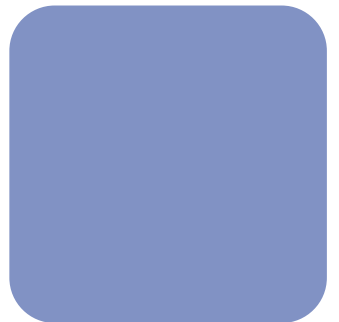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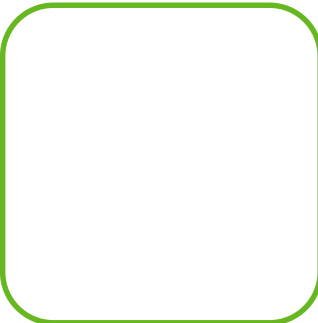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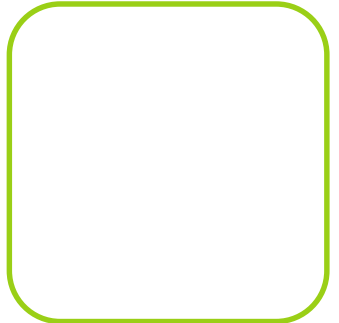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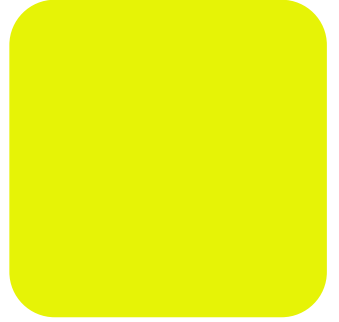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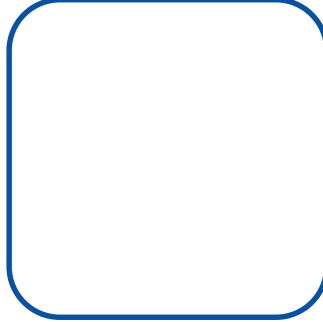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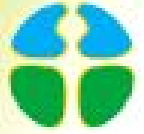
한국의 레지오 마리아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기간 동안 단원 수의 커다란 성장을 경험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국과 아시아 전역에서 복음화의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끈질리움은 모든 행동단원들에게 ‘복되신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의 실천과 축진을 통해 그들의 영성 생활을 쇄신함으로써 이 복음화의 버팀목이 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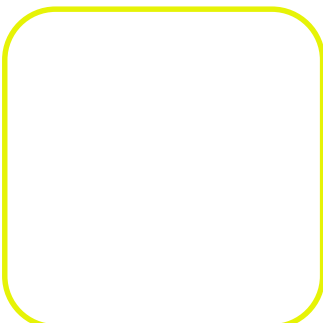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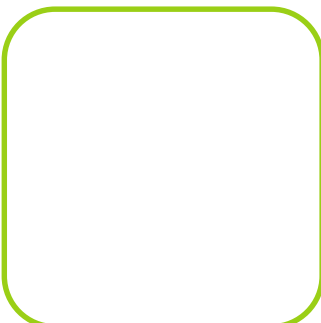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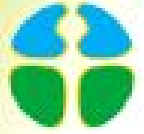
저희는 이 대회가 모든 평신도 단체들이 교계와 협력하여 복음화의 새로운 조류에 편승하는데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대회의 처음에 스타니스와프 리우코 추기경님께서 제기하신 도전 목표는 40억의 아시아 사람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저희는 모든 본당에서 사제들을 도와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저희는 북한으로 가서 그곳의 형제자매들에게 저희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날을 위해 기도하려 합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의 동료 레지오 단원들과 함께 저희는 아시아의 복음화 과정에서 레지오 마리아가 평신도 단체로서의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는 교회의 선교를 위한 이러한 새로운 새벽을 맞아 교계와 그리고 모든 교회 공동체 및 운동 단체와 함께 활동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성령의 권능을 통해 모든 남자와 여자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하시려는 복음화의 별 성모님께 저희의 모든 신뢰를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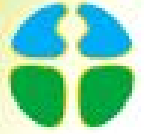
\*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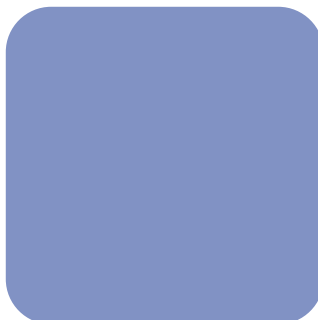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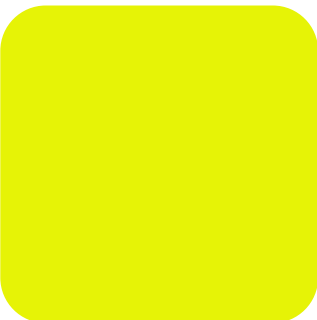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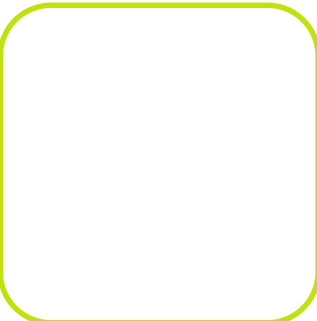




\*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 대회



\*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 대회





## 새로운 복음화의 때가 왔습니다

2010. 11. 14

1. 인사
2.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3. 아시아평신도대회에서 한국교회를 다시 돌아봄
4. 가난한 나라의 교회들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5. 구체적인 이웃 사랑: '울지마, 톤즈'
6. 친교의 교회상
7. 평신도사도직과 새로운 복음화
8.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선포하자

### 1. 찬미예수님!

전례력으로 한해를 마감하는 주일을 한 주간 앞둔 오늘, 마흔세 번째 평신도주일을 맞이하며 교우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주교님을 비롯한 성직자, 수도자 분들과 더불어 하느님 백성을 이룩해 새로운 복음화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다짐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평신도주일이 제정되고, 이날 평신도가 제단에 올라와서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데에는 1968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발족되고, 그 해 주교회의가 이를 결정해 주면서 부터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2. 조금 전에 들은 독서와 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사탄이 비록 갓은 술수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하느님께서도 우리가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2베드 3,9)입니다. 하느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무한히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한 분, 우리에게 대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희망을 둘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루카 21,9).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루카 21,18).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루카 21,19).

3.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오늘날 아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선포하기’라는 주제로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교황청 평신도평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와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은 교회가 아시아의 백성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봉사”라는 교황권고 「아시아 교회」의 가르침을 상기하면서 평신도들이 복음화의 일선에서 교회의 목자와 일치해서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이웃에 전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어 다가오는 미래 사회의 희망의 등불이 되어야 함을 참석자 모두가 인식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시아 20개국 대표와 30여개 교회운동 단체들이 함께한 이번 평신도대회에서 또 한 가지 식별할 수 있었던 것은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서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 가운데 박해받고 있는 교회가 많다는 사실이고, 여기에 비해서 인구대비 10.1%의 복음화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는 상대적으로 넉넉하고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 세계 인구 65억 중 3분의 2가 넘는 40억 이상이 아시아에 살고 있지만, 가톨릭 신자는 불과 3%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필리핀을 제외하면 고작 1%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거 소비에트연방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은 사제가 1명뿐이고 총 신자 수가 90여 명이며, 우즈베키스탄은 총 신자 수가 3천여 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와 얼굴 모습이 비슷한 몽골은 700여 명 신자가 있을 따름입니다. 이 밖에 남아시아와 서아시아에도 소수 종교로



서 박해받고, 자연재해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로서 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관심을 가지면서 평신도 선교사 파견과 같은 프로그램도 마련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5. 올가을 국내 영화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 작품 ‘올지마 톤즈’는 내전 중이던 아프리카 수단에서 의료 선교를 하다가 숨진 한 수도 사제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주인공인 이 한국인 사제가 자청해서 간 남수단은 내란을 겪으면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지역이었고, 그곳에서 그는 험벗고, 굶주리고, 다치고, 병에 걸리고, 희망을 상실한 주민들에게 의술과 예술, 따뜻한 가슴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가 톤즈 마을의 배고픈 아이들, 밤낮 사흘간 걸어서 찾아온 환자들, 수단인조차 외면하는 한센병 환자를 바라보는 선한 시선과 해맑은 미소가 장면마다 배어납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이에게 해 준 것이 곧 나에게 해 준 것’ (마태 25,40)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년 동안 그런 생활을 한 이 수도 사제는 올해 1월 14일 대장암으로 선종했고, 48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찍 데려가셨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어떤 자세로 복음화에 나서야 하는지를 세상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6.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지난달 전교주일 담화에서 ‘예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선교사명 의식은 선교 사제와 봉헌 생활자, 평신도 선교사들이 교회 친교를 촉진하고자 노력할 때 길러진다”면서 ‘친교의 교회’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볼 때 18세기말 오직 한분뿐인 사제를 살리기 위해서 평신도 회장이 대신 붙잡혀 죽어간 을묘년 주문모 신부 실포사건(失捕事件)과 6년 후 신유박해 때 교우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이 중국인 사제가 관가에 자수해서 순교까지 한 사례는 목자와 양떼 사이의 아름다운 친교의 전통을 말해줍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모두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써 친교의 교회상을 바로 세워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7.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들과 교황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은 평신도의 교회생활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는 교회 내에서 주변 사람들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증거자들입니다. 우리는 세례 때 이미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마르 16,15)할 사명과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곧 사도직입니다.

이제 새 천년이 시작되기도 1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복음화’의 때가 왔음을 거듭 거듭 일깨워주면서,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복음화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8. 이번 아시아 평신도대회 폐막미사 끝에 진행된 선교 파견예식에서 참석자들은 하얀 묵주와 함께 묵에 거는 십자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대회에 참석한 300여명만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교회, 아니 온 아시아 평신도들이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성모님의 시선으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열심히 기도를 바치고, 세상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수난을 겪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매 순간 다짐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활하면서 만나는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수난에 합쳐드리면서 “서로 사랑하라”(요한 13,34)는 ‘말씀’을 실행에 옮기고 이웃에 전함으로써 이 땅과 온 아시아에 예수 그리스도님을 선포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아멘.



## 서울대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2010 서울대학교구 선교대회 개최 ‘만민에게 복음을 주제로’

서울대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최홍준, 담당 민병덕 신부)는 서울대학교구 사목국과 공동으로 2010년 선교대회 ‘만민에게 복음을(Ad Gentes)’을 지난 10월 9일 명동성당 코스트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교구사제의 해외 선교 현황과 전망’에 대해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한국지부장 겸 선교센터 관장인 이종승 신부의 발표와 ‘해외 선교체험기’를 주교회의 해외주사목위원회 총무인 송영호 신부의 발표에 이어 지난 6월 선교체험사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본당과 단체의 선교 체험사례를 발표하며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됐다.

체험사례에서 우수상을 받은 대치동성당 김명옥 자매는 레지오 단원으로 봉사하며 겪은 여러 유형들의 사례를 발표하며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외쳐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장려상 수상자인 상계동성당 강동인 형제는 본당 족구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을 이어가는 선교활동을 소개하고, 동천 성바오로성당의 이희숙 자매는 소공동체 활동을 통해 직접 만든 딸기잼을 이용해서 아파트 단지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등 선교사례를 소개하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날 선교대회 미사를 주례한 교구 총대리 염수정 주교는 강론을 통해 “믿음이 없어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덕분에 하느님을 믿을

수 있다”며 “우리는 사랑을 통해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고, 이웃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느님을 믿게 된다”며 생활 안에서의 선교를 강조했다.

한편 파견미사에서 체험사례 공모에 대한 시상식도 있었다.

### 제7회 사랑·생명·가정 사진공모전 시상식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작품 전시회개최



서울대학교구 평협은 가톨릭 사진가회와 공동으로 제7회 사랑·생명·가정 사진공모전을 주최하여 지난 10월 26일 명동성당 소성당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최원자씨의 작품 ‘내사랑 음치’가 대상을 수상하는 등 총 50점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입상작은 명동성당 들머리 야외전시로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6일간 전시되었다. 평협은 이 전시회를 통해서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하는 사회에서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을 통해 아름다운 사회를 지향하며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단체 소식

<서울대교구가톨릭경제인회>

제11회 회장배 사제초청 친선골프대회

서울대교구가톨릭경제인회는 10월 4일(월) 춘천 라데나 골프클럽에서 '제11회 회장배 사제초청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이 행사는 사제서품 20년 이상 되신 신부님들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대회는 사제 40명과 회원 55명이 참석하였고, 서울과 의정부, 인천, 춘천, 청주, 대구, 광주의 회원과 사제들도 한 팀 혹은 두 팀을 이루어 참석하여 전국적인 행사가 됐다.



당일 참석한 사제와 회원들은 쾌청한 가을날 운동을 통해 서로 친교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행사를 위해 회원들의 찬조금과 물품협찬이 답지했다.

아울러 가톨릭경제인회는 '제2회 한국청년대회'와 '아시아가톨릭평신도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회원대상의 협찬금을 모금했다. 많은 회원들의 협조로 모금한 협찬금은 대회 측에 전달되었고 아시아평신도대회기간에 방문한 고위 성직자들을 불편 없이 모시는 차량지원도 담당하여 대회의 성공적인 진행에 일조했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서울대교구 이사회>  
자선음악회 열어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서울대교구 이사회(회장 김은배)는 10월 22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대성당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어려운 이

웃들은 우리의 가족입니다'라는 주제로 자선 음악회를 개최했다.

1부에서는 서울 빈센트 앙상블이 슈만과 모짜르트의 곡들을 연주하며, 2부에서는 생활성가 가수 김정식(로제리오)씨가 공연을 펼쳤다. 2007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음악회 수익금은 전액 난치병 환자를 위한 의료비와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노숙자 쉼터 지원 등에 사용된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는 세계 140여 개국 신자 회원들로 구성된 국제 사도직 단체로, 종교와 인종을 초월해 가난한 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청주교구와 대전교구 만남의 장 가져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홍거, 담당 임기선 신부) 상임위원들은 지난 7월 4일 임기선 요셉 신부와 함께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정업택 하지노)를 방문했다. 이날 행사는 두 교구의 평협 회장이 가까운 두 교구 평협이 서로 형제애를 가지고 교류하며 친교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자고 합의한데서 시작했다.

먼저 청주교구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날 행사는 미사와 식사, 분과장들의 만남 그리고 족구시합을 하면서 즐거운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분과장들은 상임위원으로서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만큼 만나자마자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나누며 뜻있는 시간



을 가졌다. 식사시간에는 청주교구청 마당의 나무그늘에서 청주평협 상임위원들이 직접 장만한 음식으로 푸짐한 점심식사를 했다. 적당한 휴식을 취한 후 이루어진 족구 시합에서는 청주교구가 승리했다.

대전교구는 초청의 답례로 내포교회사연구소가 발행한 '착한 목자 백필립보 신부'를 선물했고 청주교구는 감자한 박스씩을 선물했다. 만남은 1년에 한 번으로 정하고 다음 해는 대전교구가 초청하기로 하고 아쉬운 작별을 했다.



### 상임위원 가족 모임 개최

대전평협은 8월 22일 구만리 유원지에서 상임위원 부부를 초청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평협 담당 임기선 요셉 신부와 김홍거 회장은 21대 상임위원으로 봉사하는 남편과 아내를 묵묵히 내·외조 하는 가족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상임위원 부부들은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식사와 여흥을 즐기며 서로를 알아가는 뜻 깊은 하루를 보냈다. 이날 미사헌금은 파키스탄 홍수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으로 봉헌했다.



##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7회 순교자현양대회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문기득, 담당 김용환 신부) 평협 주관으로 지난 9월 14일(화) 오전 9시 강화갑곶 성지에서 3500여 명의 신자들이 모인 가운데 제7회 순교자 현양대회를 개최했다.

순교자 현양대회에서는 목주기도를 시작으로 고해성사와 교구설정 50주년을 기념하는 유물, 사진전시회를 갖고 오전 10시부터 순교자현양 찬미를 했다.

이어 오전 10시30분 순교자기, 대형십자가, 바다의 별 성모상, 성인유해 행렬과 함께 입장한 교구사제단의 공동 집전으로 미사가 봉헌됐다

김용환 세례자요한 신부는 주님께서 좋은 날씨 주심에 감사드리며 미사의 앞서 50주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인천교구 성령충만' 구호를 외치며 미사를 시작했다.

정신철 보좌주교는 '순교자들의 박해와 고통이라는 순간을 넘어 하느님 안에 영원과 영광의 삶을 사셨다'며 '그분들을 본받아 우리들도 하느님의 시간 안에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드리자'고 전했다.

### 18대 평협 회장 문기득 형제 임명장 받아

지난 9월 16일 오후1시에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8대 회장으로 임명된 문기득(레오)형제가 교구장 주교로부터 임명장을 수여 받았다. 신임 문기득 회장은 인사말에서 "인천교구 설정5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도약



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평협 임원진 모두가 회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도직분을 함께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했다. 또한 부회장에 정기회(요셉), 사무총장에 김민호(스테파노)형제도 임명장을 수여받고 새로운 임원으로 구성됐다.

완벽하게 외워서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리고 ‘순례길’ ‘백주년’ 으로 삼행시 짓기 행사도 함께 이뤄져 50명에게 시상했다.

이날 도보순례에는 44개 본당 646명이 참석했고 제 단체는 18개 단체에서 174명이 참석했다. 한티성지에서 조환길 타대오 주교가 주례하는 파견미사로 이날의 행사일정을 마쳤다. 준비하고 참석한 모든 이들이 가을의 청량한 날씨와 코스로 하느님의 사랑과 순교자들의 정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삼행시 수상작 - 백(백년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주(주께서 대구교구에 베풀어준 크신 사랑) 년(년을 맺은 이 신앙 영원히 굳세게 하소서)

순(순망치한(唇亡齒寒)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거늘) 레(예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순교정신 없었던들) 길(길 걷는 우리의 우리 어찌 있을 수 있으리오.)

##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교구설정 100주년 맞이 도보성지순례

지난 10월 2일(토) 교구설정 100주년 맞이 도보성지순례가 있었습니다.

전 교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사는 성가양로원을 출발 원당공소를 지나 한티성지까지 가는 코스로서 예전 박해를 피해 한티로 숨어든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지순례였다. 성지순례답게 시작할 때에 성경구절을 외우며 도보하도록 배부하였고 한티성지에서 성경구절을 암송하여 완벽하게 암송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었다. 성경구절이 길어서 많은 분들이 중도에 포기했지만 세 명이



### 단체 소식

### 가톨릭미술인회 100인 초대전 개막

대구 가톨릭 미술인회 주최 대구대교구 평협 주관으로 지난 8월 14일(토) 가톨릭미술인 100인 초대전 개막식이 있었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 가톨릭 미술인들 100인의 작품을 모아서 한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한 전시회였다. 이번 행사는 교구설정 10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개막식에는 조환길 타대오 주교, 김병일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우동기 대구교육감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8월 14일부터 27일까지 전시하는 동안 작품판매 수입의 일부분을 100주년 성전건립 기금에 신립하였고 행사에 축하 화환을 받지 않고 쌀로 대신 받아 이웃돕기에 사용했다.





##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최양업 토마스 사제 시복시성을 위한 12회 평신도 도보 배티성지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정업택, 담당 손병익 신부)가 주최하는 최양업 토마스 사제 시복시성을 위한 제 12회 평신도 도보 배티성지 순례가 지난 9월 25일 개최됐다.

40개 본당 768명이 참석한 이번 도보 순례는 화창하고 맑은 날씨와 함께 한국천주교회의 첫 번째 신학생이요, 따님의 순교자로 일컫는 최양업 신부의 시복시성을 염원하며 진행됐다.

아침 8시 10분에 모여 백곡공소를 향하여 출발하여 10시 정각 행사부장의 주모경에 이어 손병익 신부의 격려말씀과 정업택 회장의 인사말을 듣고 순례행렬의 시작은 평협임원 32명이 참석하여 교구평협기의 선도에 이어 남부지구, 충주, 음성, 중부, 청원, 상당, 강서, 흥덕지구의 순으로 성지순례는 시작됐다.

두 줄로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즐겁게 담소를 나누며 이어지는 순례행렬은 11시 30분 산박골에 도착하여 비밀교우촌으로 형성되어 천주교 선교의 요람이 된 이 지역의 유래에 관해 듣고, 12시 30분 배티성지에 도착 백곡공소에서 배티성지까지 8km를 걷는 순례의 여정을 마쳤다.

점심식사 후 자연스럽게 이어진 조별 십자가의 길에서는 최양업신부님의 업적을 기리며, 시복시성을 염원하는 내용의 14처 순례가 이어졌다. 행사의 마무리는 야외광장에서 파견미사로 이어졌다. 배티성지 김웅렬 신부는 강론에서 '배티성지를 천주교의 으뜸 성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만명의 천사가 만원씩 자동이체를 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배티성지의 기적을 이루는 마스터플랜을 실천하자'며 '배티성지의 기적을 이룩하는 데에는 두 팔을 벌려 모두를 사랑으로 맞이하시는 성모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미사 후 이어진 정리정돈에도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솔선하는 미덕으로 손쉽게 정리를 마칠 수 있었다. 청

주교구청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갖게 된 평가회에서 정업택 히지도 회장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으나 모두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평협 임원들의 얼굴 속에서 행사성공을 향한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담당 손병익 신부님도 '교구의 평협 임원이 단결하고 하나로 뭉쳐 행사를 준비하며 실행하는 모습들에 감동을 받았다'며 '다른 지역 대교구의 평협에서도 볼 수 없는 청주교구의 단결된 모습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평협·여성위원회 임원연수회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서정권, 담당 박성열 신부)는 7월31일~8월1일 고창선운산유스호스텔에서 평협 임원연수회를 개최했다. 임원연수회는 담당사제





를 비롯한 평협과 여성위원회 임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상반기에 추진했던 사업들을 평가하고, 하반기 주요 사업들을 검토했다. 한편 단합의 시간과 산행을 통해 임원들 간 친목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됐다.

### 제3차 상임위원회의

광주대교구 평협은 9월 11일 제3차 상임위원회의를 갖고 각 지구와 단체평협의 활동보고를 받고 '순교자현양회 미사'와 '2010선교대회' 개최에 대한 토의를 활발하게 나눴다. 또한 2011년 사업과 예산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 순교자현양회 미사 봉헌

순교자현양회(회장 서정권, 담당 박성열 신부)는 순교성월을 맞아 9월18일 평생교육원에서 현양회원과 관심있는 신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교자현양회 미사를 봉헌했다. 시복시성을 위한 묵주기도와 미사봉헌, 현양회 연혁 및 현황보고, 회원 가입 안내가 있었다. 이날 사목국장 신부와 함께 미사를 집전해 주신 나주순교자기념성당 최기원 주임신부는 강론을 통해 성지를 더 잘 알리고 순교성인들의 뜻을 느낄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동주교좌성당을 출발하여 광주역, 현대백화점, 북동성당, 가톨릭센터, 문화의 전당을 지나 남동성당까지 약 5km를 거리행진을 하며 가두선교를 실시했다. 이날 파견미사를 집전한 송홍철 총대리 신부는 복음 선포는 사랑거리가 아닌 의무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다가가 함께 어울려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견미사를 봉헌한 후 선언문을 낭독하여 선교의 중요성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



### 지구 소식

#### 신학아카데미(목포, 순천지구)



### '2010 선교대회'

광주대교구 평협은 전교의 달을 맞아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투스과 함께 10월 16일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10 선교대회'를 열었다. 가두선교를 위해 임



목포지구평협(회장 김영찬, 담당 장세현 신부)은 지난 9월 5일 목포하당성당 교육관에서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학아카데미 강의를 시작했다. 교의신학(김일두 신부), 교회사(최용감 신부)에 대한 강도 높은 강의로 오는 12월5일까지 1학기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며, 목포지구



서는 7여년 만에 다시 개강 된 신학아카데미에 감사의 마음으로 기쁘게 임하고 있다.

한편 순천지구(회장 오창호, 담당 김종걸 신부)도 9월5일부터 12월5일까지 순천 조례동성당에서 신학아카데미 2학기 개강이 이루어졌다. 구약성경 신학(김영수 신부), 윤리신학(김동일 신부), 철학(박흥기 신부), 교회사(최용감 신부) 강의에 5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 광주북부지구평협 한마음 축제 개최

광주북부지구평협(회장 조광현, 담당 신혁 신부)은 지구 신앙 공동체의 일치와 단결, 친교와 공동체 정신 함양을 위해서 10월 17일 광주동강대학 강당에서 지구 내 13개 본당 사목협의회 및 제 단체 임원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마음 축제를 열었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한마음 축제는 승부보다는 함께 참여하고 공동체 유대감을 조성하기 위해 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팀으로 나누어 OX 게임, 발목 풍선 터트리기, 딱지치기 등등의 경기를 실시하여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어우러진 화기애애한 축제가 됐다.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병철 베드로 신부(서울대 교구 사무처장)의 피정지도로 성향을 이뤘다. 파견미사는 교구장 김희중 회지도 대주교가 집전했다.



### 미술가회 정기 회원전

미술가회(회장 김재형, 담당 이호 신부)는 9월 9일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와 내빈들을 모시고 개막전을 시작으로 15일까지 상계갤러리에서 회원전을 가졌다. 올해로 27회째를 맞는 회원전에서는 한국화, 서양화, 공예, 서예 등 여러 장르의 미술작품이 출품되었는데, 특히 눈을 끄는 작품은 미술가회 담당사제인 이호(남약성당 주임)신부의 공예작품(감실, 높이160cm) 2점이었으며, 김재형 회장의 작품(갯세마니의 밤, 20호)을 비롯하여 29명의 회원이 모두 35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이번 전시작품도 예전과 같이 聖畫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었지만 회원들이 평소 하고 있는 작품도 일부 출품됐다. 이날 김희중 대주교는 축사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회원 여러분에게 주신 예술적인 재능이 교회 안에서 더 아름답게 빛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통하여 하느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회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11월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작품주제로 제2회 어린이 성화(聖畵)작품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 단체 소식

### 성체신심대피정 개최

지속적인성체조배봉사자협의회(회장 황규열, 담당 고재영 신부)는 8월 30일 성체신심대피정을 임동주교좌성당에서 가졌다.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라는 주제로



### 여성산악인회 피정

여성산악인회(회장 임현신, 담당 박성열 신부)는 9월7일 목포 산정동성당에서 13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피정을 가졌다. '산에서 만나는 하느님'이라는 주제로 장민휘 신부와 한 세레나 수녀님의 강의를 있었다.



설, 단체의 700여 명이 참여해 '2010년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가졌다. 이날 폭주기관차, 느낌보경기, 8인 제기차기 등 경기가 진행되었으며, 장애인의 화합과 사회통합 그리고 삶의 희망을 고취하기 위한 목표로 실시되는 체육대회는 매년 국민은행 호남남지역본부의 도움과 후원으로 더욱 흥겨운 하루가 됐다.

### 교구장 평신도단체 사목방문

광주대교구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는 제9대 교구장 착좌 후 처음으로 교구 평신도단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그동안의 활동한 사업들과 앞으로의 추진할 사항들을 듣고 격려했다. 사목방문은 10월 19일에 꾸르실료, 세나투스, 10월 26일에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파티마의세계사도직에서 실시됐다.

### 성 프란치스코 사부축일 축제 한마당

재속프란치스코 광주지구회(회장 신현식, 영적보조자 심종민 신부)는 10월3일 세라핌적 사부이신 성 프란치스코의 축일을 맞이하여 형제적 친교를 나누는 축제의 한마당을 장성 재속프란치스코 광주지구 회관에서 가졌다.



###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장애인복지협의회(회장 김명선, 담당 임영배 신부)는 10월9일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에서 17개소의 장애인 시





##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10회 요안루갈다제

지난 9월 25일(토) 오전 11시 치명자산 성지 광장에서 제10회 요안 루갈다제가 ‘동방의 진주를 세계의 진주로’란 주제로 거행됐다.



대미사전, 도보순례참배가 치명자산 성지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30분까지 신앙문화 해설사의 안내로 진행됐고, 하느님의 종 124위 시복시성을 위한 묵주기도를 바친 후 오전 11시에 이병호 주교 주례로 교구사제단과 함께 현양대미사를 봉헌했다.

교구 내 성당에서 참가한 3,000여 명의 신자들이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광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이병호 주교는 강론에서 칠레 33인 매몰 광부들의 예를 들어 “사람이 목숨을 바쳐 서로를 위해 주니까 모두가 살아났다”며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라고 말했다. 미사 중에 문정성당 신자들이 준비한 유항검 성가정 성극 공연이 있었고, 스피리툼 성가대의 요안루갈다 현양성가 발표가 이어졌다.

### 교구장 이병호 주교 서품20주년 및 고희연

전주교구 평협이 주관하는 교구장 이병호 빈첸시오 주교 서품 20주년 및 고희연이 지난 9월 27일(월) 오전 10시 교구청 4층 강당에서 교구사제단과 수녀연합회 임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임원, 여성연합회 임원, 교구청 직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베풀어졌다. 미사 후 교구

청 직원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가진 고희연에서는 새 사제와 평협임원, 직원대표, 여성연합회 임원 등이 차례로 나와 큰절을 올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때 이 주교는 높은 자리에 앉아 절을 받을 수 없다며 맞절을 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 줬다.



### 전주 평협 상임위원 운영위원 성지순례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강상근, 담당 유장훈 몬시뇰)은 지난 10월 9일 갈매못순교성지에서 상임위원과 운영위원 성지순례 했다. 전주에서 갈매못순교성지까지 버스로 이동 중 말씀의 전례에 이어 유장훈 몬시뇰의 훈화, 갈매못순교성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갈매못순교성지의 성 다블리 안토니오 주교, 성 오 메트르 베드로 신부, 성 위앵 루카 신부와 성 황석두 루카, 성 장주기 요셉과 500여 순교자들이 거룩한 피를 흘리셨던 보령 오천면 영보리 거룩한 순교의 땅을 순례한 다음 전국 여러 지역에서 온 순례자 600여명과 함께 미사를 봉헌했다.





## MBW 한국 공동체 추진 봉사회

### M.B.W. 하계 전국 끈비벤자 개최

M.B.W. 한국공동체추진봉사회(회장 조정오 요셉 신부)는 8월 16일(월)~18일(수) 2박 3일 동안 대구교구 한티피정의 집에서 하계 전국 끈비벤자(convivenza: '함께 산다'는 뜻)를 가졌다. 봉사회에서는 매년 1월과 8월 두 차례의 전국 끈비벤자를 가져왔는데, 이번 모임은 14명의 사제와 1명의 수도자를 포함하여 서울, 수원, 원주, 대전, 안동, 대구, 전주, 광주 교구의 추진회 그룹(Promoting Group) 봉사자들 45명이 '대화(Dialogue) 과정'을 주제로 묵상과 기도, 나눔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M.B.W의 여러 과정 중에서도 특히 '대화 과정'은 개인과 단체 및 세상과의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체험과 느낌을 중심으로, 교회의 본질인 사귄 영성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을 묵상하는 것으로, 전체 주제는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인 '주님의 교회(Ecclesiam Suam)'에 나타난 영성을 체계화하여 교회의 예언적, 사제적, 봉사적 수행에 필수적인 대화의 필요성 및 방법과 영성을 심화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대화 과정'도 M.B.W의 여느 과정처럼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I부 자각의 단계에서는 「이 시대의 요구로서의 대화」 「대화의 본질」 「대화의 사회적 여건」 「대화의 단계」라는 주제로 되어 있으며, II부 회심의 단계는 「성성으로 불림 받은 교회」 「공동체 성숙의 길」 「대화의 장애」 「일치의 소명으로서의 대화」, III부 실천의 단계에는 「대화의 영역」 「대화의 기술과 방법」의 주제로 나뉘어져 있

다. 발표자는 전국팀(National Team)을 중심으로 각 교구별로 담당자를 정하여 신자 재교육을 위한 사전 체험의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친교와 묵상의 과정으로 첫날을 보낸 다음 날, 팔공산을 감싼 비의 장막을 뚫고 대구대교구 교구장 직무대리인 조환길 주교가 방문하여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운동이 세상의 변화에 따른 교회의 쇄신과 변화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는 격려를 했다.

M.B.W는 제2차 세계 대전 후, 예수회 신부인 이탈리아의 리카르도 롬바르디(Ricardo Lombardi) 신부에 의해 "사랑의 십자군"으로 창시되어 1948년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 M.B.W(Movement for a better World)라는 평신도 단체로 승인되었으며, 이후 교황의 희망에 의해 이 운동의 전 세계적인 확산을 위한 협조자로 추진회(P.G)가 결성되었다.

한국에서는 1966년에 서울의 박도세 신부가 리카르도 신부를 초청하여 이 운동의 한국 진출을 논의한 후 1968년에 한국 공동체추진봉사회(CASK)가 구성되었고, 현재 9개 교구에 추진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0명 회원 중에서 80여명이 공동체 영성을 통한 세상과 교회의 쇄신을 위해 활동 중에 있다.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한 순례자적 임시성을 강조하는 M.B.W 조직의 특성상 각종 교육을 마친 일반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체의 단체구성은 하지 않고 있으며, 주로 교회의 올바른 역할과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영성교육에 중점을 두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의 징표를 복음에 비추어 예언적으로 식별하여,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 이 시대에서 필요한 교회적 삶을 제시하고자, 이번 하계 전국 끈비벤자에는 예년에 비해 많은 추진회원들이 참석했으며, 마지막 날에 가진 임시총회에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중앙회(CBCK)의 요구에 의해 개정된 회칙을 인준하고, M.B.W 전담 사제로 양성기 위해 대구대교구 박장근(베드로) 신부를 9월 5일~18일 동안 로마에서 개최되는 국제끈비벤자 참석과 더불어 이탈리아에서 3년간의 유학을 통해 M.B.W 영성과 문헌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자하는 파견식을 가졌다.

봉사자들은 이번 하계 전국 끈비벤자를 계기로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M.B.W 운동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



하며, 내년 1월 4일~7일(3박 4일) 동안 전주교구 천호성지에서 개최되는 동계 전국 끈비벤자에서 다시 만나기를 약속했다. 내년의 동계 전국 끈비벤자에서는 [사도직] [양성] [대외봉사] [대내봉사]의 4개 팀별로 M.B.W. 한국공동체추진봉사회와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따른 연간계획을 수립하며, 나아가 각 교구나 본당에서의 사목계획 수립에 대한 이론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 전국 가톨릭 간호대학생 피정 개최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회장 채계순 수녀)는 7월 2일에서 3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전국 가톨릭간호대학생 24명



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장충동 성 베네딕토 피정의 집에서 피정을 개최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피정에서는 동서남북(아침, 정오, 저녁, 밤의 주기)→ 탄생, 생명, 죽음, 재탄생) 각 방향의 의미를 새기는 사방기도와 촛불을 켜고 ‘탄생의 열 걸음’을 묵상하며 내가 태어남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다.

또한, 10년 후 나의 모습을 그려보는 시간을 통해 “우리가 사는 이유는, 현재에 만족하고 행복을 만끽하며 더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함 이다. 그런데 문득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고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 먼 곳을 바라보자. 그것은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등대의 역할을 한다. 정신없이 달리고 있을 때 가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 그리고 10년 후 나의 모습을 그려보자. 그것이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행복을 찾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자”는 내용의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찬양과 이야기가 있는 마당, 나를 보는 마당, 너와 나의 마당, 시간을 걷는 우리 등의 소주제로 ‘자신을 깊게 받아들이며, 하루를 충만히 살기로 마음을 모으며, 이 모든 신비에 몸과 마음을 활짝 열고 걸어가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전국 가톨릭간호사 피정 및 전국이사회 (2010년 2차, 48회) 개최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회장 채계순 수녀)는 8월 28일부터 29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영적 돌봄은 하느님의 축복입니다’의 주제로 천주교 안동교구 농은수련원(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에서 전국 가톨릭간호사 피정을 개최했다.

안동교구 가톨릭간호사회(회장 이진미, 담당 황재모 신부) 주관으로 가톨릭 신자 간호사 231명이 참가한 이번 피정은 안동교구장 권혁주 주교의 특강을 시작으로 안동 하회별신굿·소프라노 박영민(아멜리아)씨의 공연, 전국이사회, 이춘자 수녀(성심요양원 원장, 그리스도의 교육수녀회)의 특강, 파견미사 순으로 이어졌다.

권 주교는 특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극복하려면 인간에 대한 기계론적 사고방식에서 생명론적 사고방식으로 의식을 전환해야 한다”며 “가톨릭 간호사로서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섬기고 돌보는 ‘생명과 환경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춘자 수녀의 특강을 통해 ‘영적 돌봄’을 수행하는 가톨릭 간호사의 역할과 사명을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다.

해마다 교구 별로 개최되는 이 피정은 2008년 마산교구, 2009년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30주년 행사로 대체, 2010년 올해는 안동교구, 2011년엔 인천교구에서 주관한다.



### 제1차 간호 영성 포럼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학술부에서는 10월 6일(수), 전국 7개 교구에서 간호사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들의 간호영성 강화를 통한 질 높은 영적 간호실현을 위해서 제1차 간호영성 포럼을 실시했다.

김종순 수녀(시튼 영성의 집)의 “나를 찾아서”와 정무근 신부(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 센터)의 “영적 돌봄”의 강의가 이어졌다.



대'는 당부를 했다.

미사 후 외돌개에서 시작하는 올레길 7코스 걷기가 이어졌고, 이시돌 피정센터 내 새미 은총의 동산에서 예수님 생애 공원과 십자가의 길, 묵주기도의 호수를 순례했다. 맑고 화창한 제주의 가을 풍광을 더욱 실감나게 느낀 ‘사려니 숲길’ 산책을 마지막으로 저녁식사를 한 뒤 피정전 일정을 마쳤다. 행사를 주관한 제주교구 경제인회 김창부 회장과 회원들은 1박 2일간 열성을 다해 피정진행을 위해 봉사했다. 참석자들은 더 많은 회원들이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을 내년으로 미루며 다음 모임을 기약했다.

### 한국청년대회 지원금 전달

한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 최철수 회장은 한국청년대회 지원금 51,500,000원을 지난 7월 13일(화) 의정부교구장 이기현 주교에게 전달했다. 이 지원금은 서울을 비롯하여 인천, 대구, 광주, 마산, 부산, 제주교구 회원들의 정성을 모은 것으로 성금을 전달받은 이기현 주교는 ‘많은 분들이 청년대회를 위해 정성을 보태고 있는 것에 큰 고마움을 느낀다’며 ‘청년들이 참 신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로써 한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는 1회 제주 대회에 이어 2회 의정부 대회에도 교회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한 후원에 함께 했다.

## 한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

### 전국 회원피정

한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는 지난 10월 22일(금)부터 23일(토)까지 협의회 전국회원피정을 제주 서귀포시 면형의 집에서 실시했다. 이 행사에 제주와 부산, 마산, 의정부, 서울대교구 회원과 부부 70여명이 참석했다. 피정 첫날은 임원회의에 이어 미사와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미사를 집전한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는 강론에서 ‘사회교리서 연대의 정신이 오늘날에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미사 후 전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만찬을 겸한 친교의 시간으로 마무리했다. 둘째 날은 담당사제 조학문 신부와 의정부교구 담당 김오석 신부 집전으로 미사를 봉헌했다. 조학문 신부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란 복음구절을 강조하면서 ‘피정을 통해 현대인에게 부족한 침묵을 살고, 자연과 내가 하나 되어 버릴 것은 버리고 흘려보낼 것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용해하는 하루가 되길 바란

## 레지오 마리에 광주 세나투스

### 레지오 마리에 기사2단계교육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투스(단장 김남철, 담당 황양주 신부)는 7월 2일~3일(1박2일) 광주 명상의 집에서 레지오 마리에 기사2단계 교육을 실시했다.

기사 2단계교육은 기사 1단계를 수료한 단원들로 이영현(마리오)신부의 개회미사 후 ‘바로로의 사상’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담당사제의 ‘레지오 정신과 의무’란 주제 강의에 이어 파견미사로 124명이 수료했다.



### 소년 뵈레시디움 성인간부교육

소년 뵈레시디움 성인간부들을 대상으로 7월 18일 광주 명상의 집에서 64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실시했다. 김관수(시몬)신부의 청소년의 심리에 대해서 앞으로써 소년 레지오 단원들을 심리적으로 잘 이해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눈높이 맞추기 교육이 이루어졌다.



### 레지오 마리에 기사3단계교육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투스는 9월 3일~5일(2박 3일) 광주 명상의 집에서 레지오 마리에 기사3단계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사 3단계교육은 기사 1,2단계를 수료한 단원들이 참석하며 개회미사에 이어 박성열(토마스) 사목국장신부의 선교의 사명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둘째날은 단원으로서의 기사도의 열정과 나눔 토의를 하였으며, 병원활동과 건강관리에 대한 강의에 이어 선교 전략에 대해서 실습을 하였다. 마지막날은 천주교와 개신교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담당사제의 올바른 성모신심을 통해 레지오 단원들이 개인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바라며 106명의 수료자와 함께 파견미사로 기사3단계교육을 마쳤다.



### 꼬미시움, 꾸리아 간부피정

10월 2~3일 목포 레지오 마리에 기념관에서 목포지역 산하 꼬미시움, 꾸리아 간부들을 대상으로 피정을 하였다. 장민휘(베네딕토)신부의 올바른 성모신심과 김선옥(벤자민)수녀의 성가정과 부모교육에 대해서 강의해 주어 유익한 시간이 됐다.

### 뵈레시디움 4 간부교육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투스 직속 12개 꾸리아의 뵈레시디움 4간부들을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평생교육원에서 '레지오의 사도직, 기본요소, 뵈레시디움의 주회합'에 대한 강의로 3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교육을 마쳤다.





### 한국가톨릭 나사업연합회

#### 소록도 천주교회 선교 75주년과 본당설립 50주년 기념미사

지난 10월 12일 화요일 오전 11시 소록리 2번지 성당에서 소록도 천주교회 선교 75주년 및 본당설립 50주년 기념미사가 봉헌됐다. 제1부 김정식 로제리오의 생활성가 공연 이후 제2부 최창무 안드레아 주교의 집전으로 50주년 미사가 봉헌되었고 축하식과 축하연이 이어졌다.



#### 전국 가톨릭 정착마을 사목 연합회 2010년도 결산총회 실시

2010년 10월 25일 5시 ~ 26일 10시까지 대전 대철 청소녀회관에서 전국 가톨릭 정착마을 사목 연합회의가 있었다. 결산총회는 교회 회장님, 마을 대표, 지부장들 참석하에 임원회의, 음악피정 등으로 진행됐다.



### 동정

#### 전국생명대회 참석

7월 10일(토)~11일(주일) 음성 꽃동네연수원에서 개최된 '2010 전국 생명대회'에 대전평협 김홍거 회장과 임원, 광주평협 서정권 회장과 임원, 청주평협 정업택 회장과 임원, 춘천평협 김춘배 회장과 임원 등 각 교구평협에서 참석했다. 아울러 한국평협에서는 최홍준 회장과 김길성 사무총장, 유영훈 사무국장이 참석했으며, 한국가톨릭 여성협의회 권경수 회장과 임원, 레지오 마리에 서울세나투스 한휘운단장과 임원들이 참석했다.



#### 대전평협 회장 자녀 결혼, 전주평협 회장 자녀 결혼

10월 3일 전주평협 강상근 회장 막내아들 혼인성사,  
서울 대방동성당

10월 23일 대전평협 김홍거 회장 장남 혼인성사,  
대전 탄방동성당

다음은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신임 한홍순 토마스 주바티칸 한국대사에게 신임장을 제정받는 내용의 10월 21일자 바티칸통신(VIS) 기사를 한국평협 김홍래 국제협력위원장이 번역한 내용이다. -편집자

### 복지 국가의 건설에 공헌하는 한국 교회

바티칸 시티, 2010년 10월 21일 (VIS)

- 오늘 아침 교황 성하께서 한홍순 신임 바티칸 주재 대한민국 대사의 신임장을 받았다.

신임 한국 대사에게 영어로 연설하면서, 교황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화하게 한 최근 몇 해 동안의 대한민국의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해 바티칸을 방문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말을 상기하면서 교황 성하는 “빠른 경제 성장에는 윤리적인 문제를 쉽게 도외시하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이들이 경제적 번영의 결실로부터 소외되는 위험이 따릅니다. 최근 몇 해 동안 있었던 금융위기는 이러한 위험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제위기는 경제와 정치 행위의 윤리적인 근간을 새롭게 하기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하도록 해 주었습니다.”라는 말로 경제위기의 효과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교황성하는 “사회정의를 보장하고, 물질적인 번영에 발맞추어 공동선을 배려하고자 노력하는 귀국 정부에 격려를 보냅니다.” 라고 하면서 “한국의 가톨릭교회가 이처럼 가치 있는 목표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럴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사회 안에서 가톨릭교회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교황 성하는 “가톨릭 학교들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는 젊은이들의 도덕적, 정신적인 양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종교간 대화를 통해 한국 가톨릭교회는 사람들 간의 장벽을 허물고, 상호 존중과 서로간의 이해를 높임으로써 사회적인 결속을 드높입니다. 자선 활동의 외연 확대를 통해 가난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우며, 특히 사회의 변두리로 외면되기 쉬운 난민들과 이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한국 교회의 역할을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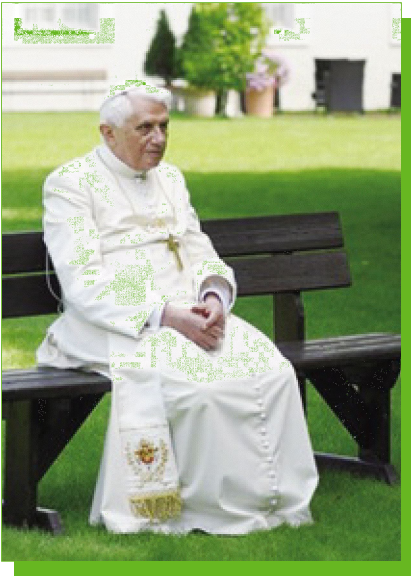
교황은 “교회의 역할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는 많은 경우 특정의 정치적 선택을 하도록 제약하는 편협한 실용주의와 당파적인 관심을 넘어 더욱 큰 것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며, 또한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위에 주어진 의무를 알아보도록 도전을 제시”한다는 점을 상기했다. 이어 교황은 “이는 우리에게 수태에서부터 자연사까지 모든 단계에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분명한 태도를 취하도록 요구하며, 자연법에 따라 안정된 가정생활을 증진하고 평화와 정의가 위협받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이를 건설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국제공동체 안에서 대한민국이 수행하는 능동적인 역할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면서, 베네딕토 16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정과 경제적 통합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고양함으로써,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와의 외교관계 수립과 특히 이번 서울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의 유치를 통해서, 귀국 정부는 국제무대의 중요한 일원으로 폭넓은 역할을 보여 주었으며 국제화의 여정이 유대와 형제애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보장”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황성하는 최근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 대회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연설을 끝맺으면서 “저는 이 중요한 행사에서 귀국과 교황청 사이에 존재하는 건설적이고 분명한 협력의 징표를 보았습니다. 이번 평신도 대회의 초점이,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리스도께 대한 굳은 믿음을 보여준, 평신도들에게 맞추어 졌던 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순교자들의 증거에 의해 견고해지고 힘을 받은 한국의 남녀 평신도들이 계속해서 이 나라의 삶과 복지를 건설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확신합니다.”라고 말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2010년 9월 26일 연중 제26주일에 삼중기도를 위해 카스텔 간돌포 사도좌 광장에 모인 신자들에게 하신 훈화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번 주일 복음(루카 16, 19-31)에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라자로의 비유를 들려 주십니다. 부자는 사치와 이기심 속에서 살다가 죽은 뒤 지옥에 떨어집니다. 반면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던 가난한 라자로는 죽은 뒤 천사들에 의해 하느님과 성인들의 영원한 거처로 옮겨집니다.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루카 6,20) 라고 선포하셨지만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가 주는 메시지는 이를 넘어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한다는 것을 기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뒤에는 회개하기에 너무 늦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 줍니다. 첫째는 하느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비천함으로부터 그들을 들어 올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삶을 향한 운명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으며, 생명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따르고, 따르지 않고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으로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로 내일 우리는 전례적으로, 선종 350주년을 맞은 가톨릭 자선 단체들의 수호성인 성 빈첸시오 드 폴 사제의 기념일을 지냅니다. 1600년대의 프랑스에서 성인은 극심한 빈부의 차이를 직접 보게 됩니다. 실제로 성인은 사제의 신분으로 귀족 사회와 접할 수 있었고, 시골은 물론, 파리 하층민들의 삶까지 모두 만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린 빈첸시오 드 폴 성인은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자신들의 시간과 재산을 내어 놓는 여성들로 이루어진 단체 ‘카리타스’(Caritas)를 창설함으로써 소외된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봉사하는 그룹을 탄생시킵니다. 이들 자원봉사자들 중 몇 사람이 전적으로 하느님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헌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빈첸시오 성인은 루이스 마리약 성녀와 함께, 세상 한 가운데에서, 사람들과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헌생활에 투신하는 첫 번째 수도회인 “사랑의 딸”회를 설립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참다운 사랑이신 그분만이 진정한 기쁨을 줍니다. 어제(25일) 로마에서 복녀로 선포된 또 다른 증거자인 한 젊은 여성이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1년에 태어난 이탈리아 처녀 끼아라 바다노는 ‘끼아라 루체’라는 새 이름이 보여주듯, 모든 이에게 하나의 빛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속했던 아퀴 테르메 교구의 본당과 포콜라레 운동은 오늘 큰 기쁨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이 축제는 그녀의 삶에서 그리스도교 신자가 실현할 수 있는 언행일치의 모범을 발견하는 모든 젊은이들을 위한 축제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가득히 순응했던 그녀의 마지막 말은 “엄마, 인녕히 계세요. 그리고 제가 기쁘니까 엄마도 기뻐하세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이 병과 죽음보다도 더 강했으니 하느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도 젊은이들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하고, 삶의 아름다움을 깨닫도록 이끌어 주시는 동정녀 마리아께 감사를 드립니다.